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14기 14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4.30(목)

광진상공지회 현판식 진행 연대와 단결로 새로운 출발 알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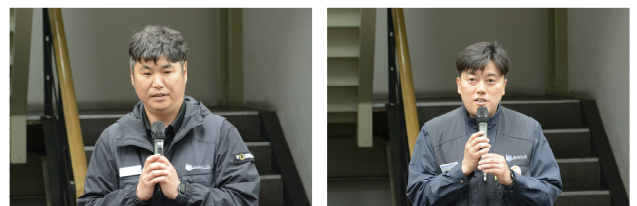


2026년 4월 29일 12시, 광진상공지회 현판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광진상공박재석 사무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금속노조 경주지부를 비롯한 각 지회 상근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현판식은 광진상공지회가 금속노조 조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로,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투쟁과 연대를 결의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특히 지회 상근자들이 함께 모여 조직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공동 투쟁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인사말과 감사 인사,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된 행사는, 참석자들은 지회의 출발을

함께 확인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현판식을 통해 조직의 출발을 함께했다.



정진홍 경주지부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현판식을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어제 진주에서 서광석 열사(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투쟁이 타결돼 더 이상 위험한 길이 아닌 하늘로 가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아이에이치엘지회가 전면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며 “자본은 노동자의 고립을 원하지만 금속

노조는 함께 싸우고 실천하는 조직”이라며 오늘 자리는 단순한 현판식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같은 길을 가자는 약속이라고 투쟁 속에서 연대와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광진상공지회 최진식 지회장은 감사 인사에서 “바쁜 일정에도 현판식에 함께 해준 지역 동지들께 감사하다”며 “조합원들의 신뢰와 지지가 있었기에 이 자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처우를 단결과 투쟁으로 바꿔 나가겠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울 동지가 있다는 점을 잊지 않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특히 광진상공지회는 2010년 11월 26일 금속노조를 탈퇴한 이후 기업별노조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탈퇴 당시 지회는 수주 물량 감소와 고용 불안, 부서 이동 등 현장의 압박이 겹친 상황에서 사측의 고용 보장 약속에 따라 조직형태변경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후 물량은 유지되지 않았고 인원 감축과 노동조건 후퇴가 이어지면서 자본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기

업별노조의 한계를 확인하고 스스로 변화를 선택하며 2026년 2월 27일 조직형태변경을 통해 금속노조로 복귀했다.

이번 현판식은 그 결과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후 이어질 광진상공지회의 변화는 지회 혼자 만들어 나갈 수 없다. 앞서 강조했다듯 연대와 단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경주지부의 모든 지회들의 연대와 지지 속에서 공동의 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